

# 중부지역 육계산업 발전에 산파역할 기대

취재/김용화 기자



▲ 중부지역 육계산업 증흥을 알리는 천안육계분회 현판식 후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

본회 천안육계분회(분회장:김풍림)가 지난 12월8일 장민기, 육계분과위원장을 비롯 분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 양계협회 천안 육계분회로 첫 발을 내딛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을 하기 앞서 Louis H. Stone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미국의 육계소비에 대한 현황을 듣고 생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통의 요지이면서 수도인 서울과 1시간 거리내에 있는 천안은 금년들어 양계산업이 눈에 띄일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 경인지역과의 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지역내의

공해문제 등으로 규제가 심할 뿐 아니라 지가가 높아 양계인들이 대거 중부권인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천원 등으로 농장을 이전하게 되어 신흥 양계생산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중부지역에서의 분회설립은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이 육계산업발전에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21명의 회원이 가입된 상태로 시작이 되었지만 넓은 중부지역 생산자들이 단합하려는 마음의 자세만 갖는다면 머지않아 대단위 회원을 영입하여 기능발휘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원들의 사육규모는 주로 2만~10만수 생산

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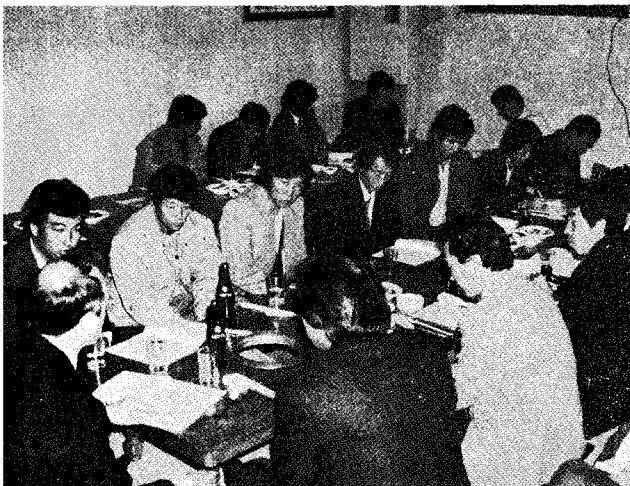
금년 중부지역 육계생산수수는 6월기준최고 400만수에 도달할 만큼 거대한 물량이 생산되는 지역이므로 본회로서의 역할은 재삼강조된다.

87년의 육계산업이 그 어느해보다도 불황이 장기화되어 종전과 같은 형태로의 사업은 발전해나가기 어렵다는 교훈을 주는 만큼 육계생산자들도 이에 대처해 나가는 움직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호황과 불황이 적당히 발생되어야 육계업을 하는 재미가 생긴다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음을 생산자들도 하나둘 느끼고 있어 더욱 단합할 수 있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불황에도 천안육계분회 회원들은 단 한사람도 도산한 농장이 없다. 이말은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무리한 입추를 자제하여 가격폭락에 대비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날 루이스 스톤박사와의 질의 응답내용도 매우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를 증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품개발이다. 홍보면에서도 생산자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상업광고(TV, 신문, 잡지)로는 예산상 어렵고 효과도 미지수이므로 소비층인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사업이 민간주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시 정부가 특별히 도와주는 것은 없고 다만



▲ 루이스 스톤박사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질의 응답을 가졌다.

### 천안육계분회 회원명단

	성명	직책	농장명
1	김풍림	분회장	성림농장
2	박재철	부분회장	세교형제농장
3	최범식	이사	성원농장
4	황동호	이사	목지농원
5	김종규	감사	소연농장
6	권오수	총무	아산농장
7	유기병	회원	성남농장
8	최상권	감사	.
9	김학선	이사	강하농장
10	권태웅	회원	솔피농장
11	김기찬	"	.
12	현명섭	"	향곡농장
13	강용식	"	원농장
14	이권섭	"	신예원
15	김형식	"	한미농장
16	김선기	"	.
17	백석기	"	.
18	지덕환	"	덕연농장
19	노관석	"	대포농장
20	정차량	"	사곡농장
21	유동근	"	.

정책실행시 부차적으로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어 발전을 하게되는 수는 있다.

미국의 브로일러 생산자들의 생활상태는 현재 가족단위 생산체계는 거의 없으며 모두가 대규모화에 따른 기업형태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각하는 브로일러 업자라는 개념으로 수준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계열화 정착에 있어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생산자들이 조합형태를 만들면서 크고 작은 형태로 25~30년 전에 이루어졌다. 주로 주체는 소비자가 가까운 쪽으로 발전해 나갔다.”

천안육계분회의 운영은 전 육계생산자들의 기대속에 시작될 만큼 서로가 자기의 편익을 조금씩 양보해가며 단체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리라고 믿어진다.

본회 분회로는 12번째로 가입된 천안육계분회의 발전을 전 양계인과 더불어 기대해 본다. **양계**